



금륜사 1층에 있는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사진=박재원 기자



길상사 문화공간 '지대방'에서는 전시회와 소규모 공연이 종종 열린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을 방문한다.



무각사 로터스 북카페에는 불교서적 뿐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 등을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무각사>



길상사 계단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자기 모자이크로 꾸민 미륵불 벽화다.

茶·문화·쉼터... 그 안에 삶의 여유와 포교 있다

도심사찰, 쉼터 공간으로 뜬다

도심에서 생활하다보면 뻘뻘한 빌딩숲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위해 들어간 인근 사찰이나 법당은 그 분위기가 엄숙해 편안히 쉬기보다는 절이라든가 참선 등 수행정진을 해야 할 것 같다.

또 일주문을 들어선 뒤 위치한 사천왕문에는 엄한 표정을 짓는 사천왕상이, 범당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탱화는 어린이들과 타종교인, 비불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 길상사,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경기도 고양시 금륜사, 광주 무각사는 기존의 사찰에 대한 관념을 깨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불자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미고 읽을거리와 마실거리 등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른바 도심 속 쉼터형 사찰이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예술가와 관광객이 알아보는 곳

길상사(길상사) 문화공간 '지대방'

길상사(주지 묘행)는 서울 관악산 자락 인현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에서부터 길상사는 사찰인지 일반주택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찰하면 연상되는 기와와 목조로 건축된 범당도 없은 뿐만 아니라 일주문도 불탑도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외형조차 장방형의 다구주택을 연상시킨다.

1982년에 창건된 길상사는 원래 관직집 형태의 작은 사찰이었다. 1996년에 이를 허물고 3층짜리 건물을 올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길상사 정위 스님은 오랜 기간 고심하면서 도예가 변승훈, 불화가 정병국, 공예가 최태훈 씨 등 여러 예술가와 신도들의 도움으로 길상사를 예술과 전통, 그리고 불교가 공존하는 사찰로 탈바꿈 시켰다.

길상사 계단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자기 모자이크로 꾸민 미륵불 벽화다. 한 손을 턱에 괴고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마치 옛 시절 고향의 어머니를 보는 듯 하다.

임소문으로 알려져 일반인들과 외국 관광객들도 방문한다는 길상사에는 '지대방'이라는 카페가 있다. 정위 스님은 소박하게나마 공간을 열어두고 손님을 맞는다. 크고 거창한 행사보다는 바자회나 자수교실처럼 소규모 모임이 주를 이룬다. 누구나 찾아와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으며 매일 '생활자기전' '장신구전' '자수전'을 비롯해 시와 음악을 곁들인 공연과 판소리공연,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 들을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테리어, 메뉴, 오픈 초대장까지 기획을 맡은 정위 스님은 "지하실에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김장을 할 때 잠시 쓰던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까워 지대방이라는 문화카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감각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은 길상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범당을 오르는 계단과 바닥에 새겨진 물고기들이 그렇고, 층 곳곳에는 촛대와 매화를 꽂은 향아리 등 여백과 조화의미를 강조한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3층 범당을 들어서면 문과 창에는 만(卍)자가 바깥게비처럼 돌아가는 법륜이 새겨져 있고, 사찰 내부바닥은 천년고찰의 마룻바닥처럼 두툼한 나무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다.

미술평론가인 최태만은 길상사에 대해 "길상사를 방문하고 나는 이 절이 현대불교미술의 가능성을 시

현하는 출발점이자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고 평했다.

정위 스님은 "주변 경관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가장 중요시 하면서 오랜 노력 끝에 만든 곳이다. 이런 저런 분들이 오셔서 잠깐 쉬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지표"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인현동 180-2 길상사
오전 9시~오후 6시 (02)883-7354

직접 만든 전통차가 일품인 도심 지대방 국제선센터 북카페 '수다원(修茶園)'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1층 로비에 자리하고 있는 북카페 수다원(修茶園)은 사찰의 지대방이자 지역의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에 차를 마시기 위해 다녀간다. 인근 성당 수녀님들도 찾아오는 정도다. 학교 앞에 위치해 가끔 학생들이 물려와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문제집을 풀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격도 1~2천원 수준으로 저렴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가격이 적었기

는 하지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내주는 카운터 대신 나무 보시함이 놓여 있다. 마음 내키는대로 보시함에 찾값을 넣으면 된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추, 유자차 등 전통차를 담가 내놓고 있어, 저렴한 가격의 더치(Dutch) 커피와 값고 신선한 차 맛은 임소문을 타고 있다.

카페 벽면에 비치된 책들은 불교 서적뿐 아니라 국내외 소설, <다빈치코드> <로마인 이야기> 등 스테디셀러도 있다.

한 방문객은 "시설이 아주 전문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장식해놓은 화

초와 직접 만든 차와 커피가 맛이 좋다. 천연염색수건 등 환경을 생각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하나 구입했다."

신종원 기자

양천구 신정6동 319-11 국제선센터 1층
오전 9시~오후 6시 (02)2650-2200

편안히 쉬면서 교리를 배우는 곳

금륜사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금륜사(주지 본각)는 민족 문화유산 서오릉과 연계돼 종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만남과 휴식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용두초등학교 앞 비탈진 길을 돌아서면 목재를 가미한 현대식 느낌의 2층 건물이 있다. 외관상으로는 사찰의 느낌이 나지 않지만 건물 1층 벽면에는 그려진 탱화를 보고 사찰인지 알 수 있다.

금륜사 1층에는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가, 2층에는 범당이 있다.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이곳에 신도들이 보시한 책들과 예술가들이 기증한 도예작품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금륜사의 공간 절반은 1층과 2층이 뿔려 천장이 높은 형태로 설계됐다. 한쪽 벽면에는 이호신 화백이 그린 '천불만다라'가 1·2층 벽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부처를 그린 50여 점의 불화가 봉안돼 있다. 이곳에 '천불전'이라는 자그마한 무대를 꾸며놓고 불교영상제와 청각·시각 장애인 음악회와 어린이 교리수업 등을 열고 있다.

카페에서는 신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고 있다. 찾값이 적힌 메뉴판은 있지만 계산대와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 카페 한쪽에 놓인 보시함에 넣을 만큼 넣으면 된다.

금륜사 총무 담당 효석 스님은 "법회 후 점심공양을 한 불자들이 범당에 앉아 쉴 곳이 없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를 마련하게 됐다"며 "차만 마시러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수녀님도 종종 오신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단체로 오기도 한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불교 포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0
오전 10시~오후 5시 (02)357-9031

광주 직장인들의 휴식처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무각사(주지 청학)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다.

옛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무각사는 1997년 택지가 발로 민간 사찰로 전환된 뒤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는 노력 끝에 2010년 5월 문화공간 로터스를 개설했다.

무각사 문화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터스 북카페는 문화관의 꽃이다. 이곳에서는 불교서적 뿐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과 타 종교의 서적을 비롯한 명상음악을 갖춰있으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전통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각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도강좌, 꽃꽂이, 요가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며 사찰음식 교실도 열리고 있다. 로터스 갤러리에는 유명 작가들의 초대전과 역량 있는 작가들에게 무료 전시공간도 마련해주고 있다.

문화관의 북카페가 현대적이려면 사찰에는 전통적인 느낌의 찾집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옛정취가 묻어나는 전통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산1번지 무각사
오전 10시~오후 5시 (062)383-0107



로더월드
www.loader.co.kr

사찰 불사의 최고 도우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산악 전용 다목적 차량 어게이트 (뜻: 일개미)

사찰의 모든 불사는 어게이트에 맡겨주세요. **제설, 분무, 과수재배, 운송, 비료살포, 방제, 트레일러 기능 등**



어게이트 작업 범위

- 분무기(물주기, 나무 / 과실수 방제)
- 제설 블레이드 (평지 및 산악지형 눈치우기)
- 염화칼슘 / 비료 살포기
- 리프트(적재할 상하동작 최대 180~200cm) 연동작업 등 상단작업 가능
- 에어 블로워(적설량 0~15cm 제설가능) 특허출원중
- 트레일러 운반 작업기(600kg 적재) 기본적재함(500kg)
- 덤프 기능

어게이트의 특징

- KOHLER(콜러) AEGIS EFI 가솔린엔진
- 안마 디젤엔진
- H일체형 프레임
- 8"서스펜션
- 변속레버
- 방향지시등
- 3' 초강력 스틸 프레임
- 전방 디퍼런스
- 라디에이터
- 후방 디퍼런스
- 유압브레이크
- 4WD 스위치

EVENT!!
특전: **선착순 50대 특별할인판매**



- 본 어게이트는 국방부 납품 제품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 서울우유 B/S 지정업체
· 미국 완제품 수입 품질인증 제품
· 국내 최초 수입품 한국 안전검정 제품
· 각 지역 서비스 지정점 운용
· 본사 순회점검 운용 시스템



로더월드
www.loader.co.kr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사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73(소정리 19-5) | 대표전화 031)637-7020 | 팩스 031)367-7030
서비스공장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512번길 233-10(도봉리 546-1)

어게이트 사양 : 길이 3,022mm | 폭 1,613mm | 높이 1,820mm